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3/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한국불교사:4세기고구려의수용에서1900년대종단개혁까지한국불교1700년의구슬을꿰어내다	정병삼 지음	푸른역사
2	생전예수재(의미,유래,공덕)개정판	포교원포교연구실	조계종출판사	7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3	알기쉬운불교강좌(상)	대안	혜성출판사	8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2017년개정판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4	예수님은법받은미륵존여래불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9	부처님의마지막발자취(초기불전003)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10	화엄경을머금은법성게의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책세상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되돌리는 불사"



초기불교 경전백선
한국붇다와다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해피스님 편역/3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이다. 삶에 대한 부처님 해석에 대해 공감과 동의 그리고 신뢰를 일으켜 뒤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종교가 불교이다. 삶에 대한 부처님의 해석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알고 봄이기 때문에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삶은 향상으로 이끌리게 된다. 하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가치들에 따라 부처님의 해석은 감춰지기 시작해 지금에 이른다. 그만큼 배워 알고 실천해도 삶이 바르게 향상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유행하는데, 으뜸 종교인 불교가 정체성을 상실케 되는 과정이다. 이슬람 제국 지배 이후에 인도서 불교가 되살아나지 못한 원인도, 작금의 한국불교 현실을 초래한 원인도 대개 이런 정체성 상실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렇다면 정체성 상실은 불교 신자가 불교를 모르는 한국불교 현실을 직시한 다른 표현이라고 하겠다. 껍데기는 불교 신자이지만, 알맹이는 불교가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토대는 불교를 아는 불교 신자 양성이라고 해야할 것인데, 특히 부처님께서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되돌아 가야하는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란 목적을 가진 이 책은 부처님께서 생전에 설한 가르침으로의 4부 니까야에서 발췌한 6장 100개의 경으로 구성되었는데, 오로지 불교 신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편집했다.



책을 편역한 해피 스님

4부 니까야서 발췌한 6장 100개 경
불교신자 정체성 회복키 위해 편집
빠알리원전, 한글 읽기 발음과 번역
추가로 세 개 수행경전 별책 준비중

이 책은 △제 1장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6개경) △제 2장 사실과 깨닫고 실현한 법(17개경) △제 3장 깨달음의 재현과 제자들의 깨달음(10개경) △제 4장 분석과 용어정의(11개경) △제 5장 신행과 향상하는 삶(37개경) △제 6장 수행과 지도(19개경)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상세한 재산 경' 은 배움의 재산을 말하는데,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들과 온전하고 완전하게 청정한 범행을 선언하는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써 이어보고 견해로써 잘 꿰뚫는 것' 이다. 부처님 생전에 직접 설한 가르침이 말에 의해 익숙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이 책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이 책이 시도하는 독송은 매우 중요한 신행이다. 이런 신행을 이끌기 위해서 책은 세가지 형태로 경을 싣고 있다. △빠알리 원전 △우리말 읽기 발음 △우리말 읽기 번역(해피스님) 등이다.

이외에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포살과 초기불교, 백팔배를 함께 실었다. 포살은 포살경이 설명하는 포살 실행 의식이고, 초기불교 108배는 한국불교의 전통적 신행인 108배에 초기불교 경전이 말하는 포괄적 실천 44가지를 적용해 구축한 신행 방법이다. 지난해 7월의 안거 때 두 개의 경을 시작으로 아침 독송을 시작했는데, 1년반 동안 독송을 확장해 100개의 경이 되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100개의 경으로 편집한 것은 아니다. 1년반 동안의 독송과 해설 과정에서 신행의 필요에 맞춰 보충하다보니 100개의 경으로 완성됐는데, 추가적으로 세 개의 수행경전을 별책으로 준비중이다.

책을 편역한 해피 스님은 "스리랑카 불교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발음을 우리말로 옮겨 현재로서는 최선의 표기를 했다. 또한 기존 니까야 와는 다른 부처님 설한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노력한 것이 이 책의 큰 특징"이라며 "100개의 모든 경이 원전과 발음과 저자의 해석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불교수행 깨달음 상담에 적용한 사례 묶어



세상에는 밝음만 있다
박종욱 지음
사단법인통섭불교원 펴냄
2만 원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중독 등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심리치유를 위해 상담소를 방문하며 도움을 요청한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과 번뇌를 해소하는 최초의 상담가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담은 곧 진리였고 깨달음의 장이었다.

신간 〈세상에는 밝음만 있다〉는 불교 수행으로 얻은 깨달음을 상담에 적용한 사례를 엮은 책이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우선 1장은 '출생과 어머니와 사별' 을 담아 어릴 적 경험과 불교에 귀의한 인연을 소개했다. 2장 '성전암의 2주' 에서는 저자가 수행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상관(實相觀)에 대한 설명을 정리했다. 3장 '어둠은 없고 밝음만 있는 체험과 본성의 마음을 알다' 에서는 저자가 경험한 깨달음의 내용을 정리했다. 4장은 '유형별 상담사례' 로 수행으로 얻은 깨달음을 1000여 내담자에게 적용하고 그 가운데 77개의 사례를 엮어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사례는 접촉성 피부염, 혈압, 암, 탈모, 축농증 등 신체적 문제부터 비롯해 우울증, 가족 불화, 게임중독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까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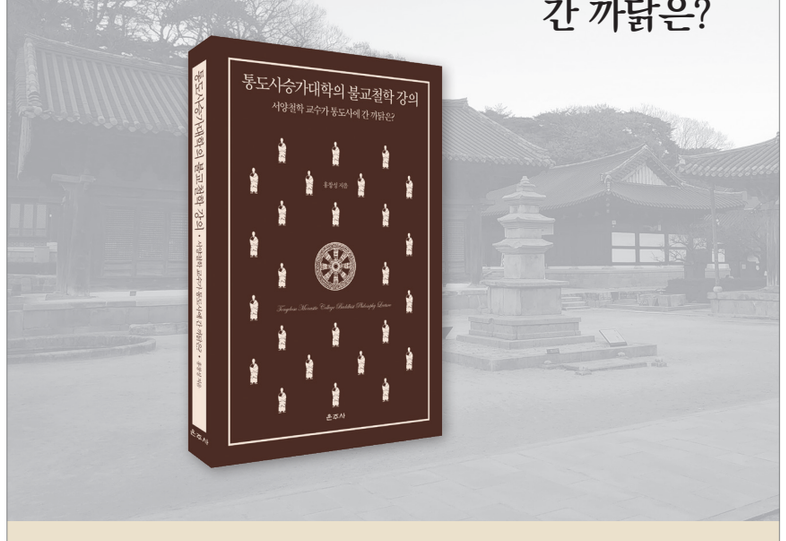
저자, 우주 전모 관찰하는 실상관법 수행
1천여 내담자에게 저자의 수행 경험 적용
77개의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정리해
사례는 신체 문제부터 심리 문제까지 다양

저자 박종욱 교수〈사진 위〉는 찾아오는 내담자에게 '참 나의 속성인 순수한 밝음' 을 강조했다. 이 내용은 저자가 수행한 실상관의 결과로 얻은 깨달음이며, 실상관은 우주의 전모(全貌)를 한꺼번에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저자는 "현상세계는 우리의 오관으로 인식할 수 있고 오온(五蘊)과 같이 늘 변하므로 무상한 불완전한 세계"라며 "실상세계는 참 나와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불변한 완전 세계이며 오관으로 인식할 수 없는 세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간은 누구나 잘할 수 있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본래 갖고 있는 완전한 실상이 바로 '참 나' 임을 깨닫게 하면 문제를 바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저자는 1936년 4월 경북 성주에서 출생했다. 경북대 경영학 박사이며 영진전문대 경영학과 교수와 부총장을 역임했다. 경북대, 대구공업대, 계명문화대, 대구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한국불교대학서 '생명의 실상' 과 '세상에는 어둠 없고 밝음만 있다' 를 주제로 강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 강의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전승되는 한복판에서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을 논하고 그 진리성을 증명하는, 진중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유와 유쾌 발랄한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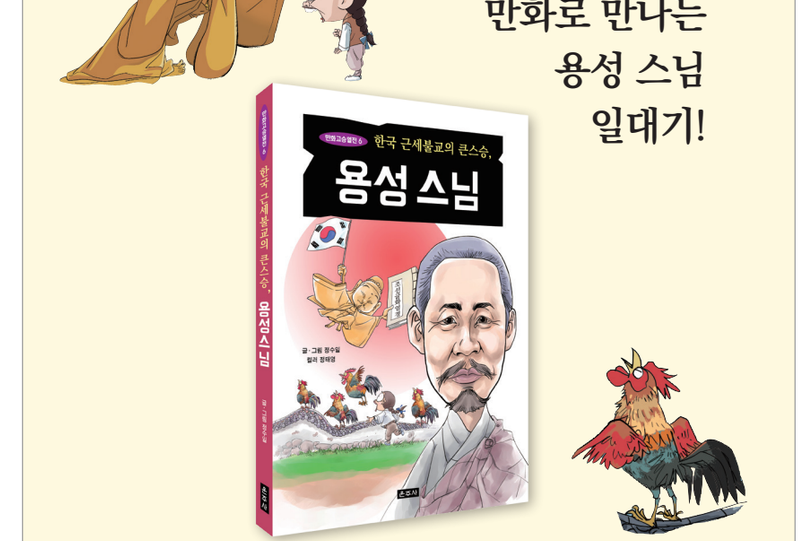
홍창성 지음/국판/248쪽/값 15,000원



석씨요람 역주 1·2

불교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불교 입문서이자 개론서! 출가자들이 불문에 들어와 생활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한 불교백과사전!

석도성 저, 김순미 역주/신국판/1권 448쪽/값 27,000원
2권 478쪽/값 27,000원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